

휘발유값 뚝뚝 ... 문닫는 지역 주유소 속출

출혈 경쟁에 경영 악화 겹쳐 10% 이상 폐업

경기도 이어 두번째 ... 잇따라 '셀프'로 전환

셀프주유소로 이름을 날렸던 광주 광산구 A주유소는 지난 8월로 문을 닫았다. 셀프 주유소로 운영하면서 한 때 잘나갔지만 인건비 상승과 과다 경쟁으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고전하다 내린 결론이었다. 지금은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부지를 매입, 가게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순천에 있는 B주유소는 최근 한국주유소협회 사이트에 주요소를 급매물로 내놓았다. 장사도 별로 안 되는 데다 부득이한 사정까지 생겨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직 구매자가 나오지 않아 이르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난감한 상황이다.

주유업계의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화상태인 광주·전남 지역

주유소 역시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 값이 1ℓ당 평균 1770원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수익률 또한 낮아져 앞으로 휴·폐업하는 주유소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 사실상 휴업중인 주유소는 40여 곳으로, 올 들어 폐업한 주유소만 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업중인 주유소가 1260여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0% 이상이 폐업한 셈이다. 이는 지역별 폐업 업체 수로 볼 때 경기도(40여 곳)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가 휴업해도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 영업해서 그렇지, 휴·폐업 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주유소를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는 옛 일이 되지 오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처럼 주유소의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유소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무리한 경쟁을 벌여 경영난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특히 일반주유소와 셀프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해 업태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남의 경우에는 도로 개설 등 입지 환경 변화에 따라 휴·폐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광주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1ℓ당 가격이 최고치와 최저치가 150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셀프주유소의 인기로 인해 폐업을

경하는 주유소도 많았다.

하지만, 문제는 경영이 악화돼 폐업을 하려 해도 주유시설 철거 비용만 최대 1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폐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폐업보다는 휴업을 준비하는 주유소가 많은 이유다. 업계는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재정에 처한 일명 ‘한계 주유소’가 많아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만 이런 주유소가 1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 서구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58)씨는 “일반주유소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유통세를 걷어 알뜰주유소에 지원, 휘발유를 담판 가격으로 팔라며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휘발유 값이 떨어져 마진도 줄어드는 상황 이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세미나 한국산업은행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지광남)는 8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지점 대회의실에서 호남지역본부 소속 광주, 목포, 여수, 전주, 군산, 제주 등 6개 종합금융지점의 지정장 및 기획팀장, 금남로 개인금융영업담당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중견 및 벤처기업 지원 활성화 제 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산업은행 호남지역본부 제공>

농촌융복합 인증 사업자에 전남 57개 업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화 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 57곳 등 농촌지역 소재 업체 379개소를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근거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사업자 인증에 앞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현장에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6차산업은 농산물 생산 등 1차 산업에 제조·관광 등 2·3차산업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

한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남, 경북(51), 경기(50), 경남(37), 강원(34), 충북(31), 충남(27), 제주(24), 대전(4), 세종(2), 인천·울산(1) 순이었다.

산업유형별 융복합 형태를 보면 1·2·3차 융복합형이 337개소(8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2차 융복합형이 25개소(7.0%), 1·3차 융복합형이 17개소(4.0%)였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되려면 ▲농촌지역 소재 경영체 ▲유·무형의 지역자원 활용 6차산업화 추진 ▲매출발생 ▲지역농산물 50% 이상 사용(부족분 국산사용 원칙)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0년간 광주·전남 자영업 폐업 76만건

국내 자영업 폐업 수가 지난 10년 동안 약 79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폐업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간 자영업 폐업은 793만8683건이었다.

연도별 자영업 폐업 현황은 외환위기 직전인 2007년이 84만806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84만5235건)과 2012년(83만3195건)이 그 뒤를 이었다.

또 2004년(69만9292건)을 제외하고 자영업자 폐업 신고가 매년 7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자영업 폐업이 400만5437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180만6630건, 서울시가 175만6378건, 부산·울산·경남이 121만 8105건, 대전·충청 81만 7916건, 대구·경북 78만2335건, 광주·전라 76만751건 등이었다.

심 의원은 “국내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 지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휴뉴스



건강에 좋은 양파와인 드세요 9일 광주 이마트 상무점에서 직원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양파와인 상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양파와인은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양파가 들어있어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제공>

기아차, 글로벌 100대 브랜드 74위

지난해보다 9단계 상승

기아자동차가 올해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전체 순위 74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올라 자동차 업계 중에서는 최고로 순위가 상승했다.

9일 기아차가 따르면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14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 2014)에서 전년대

비 15% 상승한 53억960만 달러(6조5000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하며, 전체 순위 74위에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100대 브랜드의 평균 브랜드가치 성장률은 6.7%로 조사된 가운데, 기아차는 7.5%의 성장률을 기록한 BMW, 7.6%의 성장률을 기록한 메르세데스 벤츠 등을 성장률에서 제치고 전년대비 14.6%의 성장을 달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기아차는 지난해 기록했던 83위보다 9계단 상승한 것으로 닛산과 함께 자동차 업계에서 최고의 순위 상승폭을 보이며 전체 브랜드 순위 70위권에 최초로 진입하는 쾌거를 거뒀다.

기아차는 지난 2007년 '디자인경영'을 선포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012년 처음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바 있다.

인터브랜드 관계자는 “기아차가 보여준 고객가치 혁신과 친환경 활동, 혁신적인 디자인 및 마케팅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동훈기자 dexian@kwangju.co.kr

지역 특화기업 일자리 창출·기술혁신 소개

전남테크노파크, 보성서 포럼

전남테크노파크(원장 홍중희)는 8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남지역혁신포럼'을 갖고 지역 특화산업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 방안 및 기업 금융지원 제도 등을 소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남도 및 22개 시군 지역산업 관련 공무원, 전남지역특화산업 기업체 대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관계자, 전남 3R(RIS, RRI, RIC) 관계자, 전남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및 지역특화센터, 연구소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의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과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산업 육성 및 산학연관 혁신 주체의 유기적 협력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포럼에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기술 혁신 전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 방안'을, 산업연구원원이 '전남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또 세종벤처파트너스는 기업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NH농협,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기업금융제도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선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박재웅 조선대 교수, 김병일 순천대 교수, 박순영 목포대 LINC사업단장, 박상익 카이스트(KIAT) 지역산업담당, 황기우 (주)동양하이테크 대표, 이재의 나노바이오연구원장 등 13명의 지역·산·학·연·관 대표자들이 전남지역의 기술혁신 전략, 일자리 창출, 기업금융 지원, 지역혁신 네트워크 등을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층

한국건설원 감리
매매가격상당 후 결정
현장 답사 요망

20% 감액
매매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88-5151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타워 완비

- 5층 참조은안과
- 4층 한길통증의학과
- 3층 신한은행
-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